

8조7천억 강원형 뉴딜 사업 국비 반영 주목

文 대통령 13일 국민보고대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
도 그린·디지털뉴딜 집중·국가프로젝트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

강원도가 8조7,700억원 규모의 강원도형 뉴딜사업을 발굴, 정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프로젝트에 강원도형 사업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도가 발굴, 정부에 건의한 뉴딜사업은 총 36개로 포스트 코로나 정책과 산악관광,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뉴딜에 집중돼있다. 모두 강원도가 선점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아이템은 그린뉴딜로 추진하는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다.

대관령과 태백 매봉산에 산악열차와 산장호텔 등 산악관광을 도입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재추진하는 내용이다. 도는 정부가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을 제정하고 롤모델로 스위스를 제시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국가 간 직접 교류가 어려워진 만큼 중국을 중심

◇강원형뉴딜 주요 사업

사업명	유형	사업비
한동해 통합지휘통제센터 구축	디지털	200억원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디지털	10억원
데이터산업 집적단지 조성	디지털	3,872억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그린	4,234억원
수소열차·에어택시 도입	그린	450억원
SI 실업자 구인구직 프로그램	디지털+휴먼	30억원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디지털	350억원
산림관광자원 활성화 프로젝트	그린	2조9,138억원
동해안 바닷길 자동차길 조성	그린	3,930억원

으로 한 온라인 수출 통합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업자의 구인·구직을 매칭하는 디지털·휴먼뉴딜에도 도비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춘천 수열에너지 산업 육성에 4,234억원, 데이터 집적단지 조

성에 3,872억원이 투입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가 발굴한 뉴딜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반영해 올 9월 시책보고회를 열고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